

세종연구소장에 백학순 취임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사진)이 다음 달 1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소장에 취임한다. 백학순 소장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통일부 자체평가위원장,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백지아 대사, ILO 정부그룹 의장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사진)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정부그룹 회의에서 ILO 정부그룹 의장에 선출됐다. ILO 정부그룹은 ILO 이사회의 장을 비롯한 각 중정부위원 임명 및 추천, ILO 내 노사-정간조정 중재역할을 한다.



오리온 '국군 훈련병 초코파이 후원'

이경재 오리온 대표(가운데)가 29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과자 제품을 후원하는 '국군 훈련병 오리온 초코파이 후원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이날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왼쪽)과 구제서 육군훈련소장(오른쪽)이 참석했다. 오리온은 국방부와 '국군장병 복지 및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 교육대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초코파이 11만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한국불교학회장 김성철 교수

한국불교학회는 제23대 회장으로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에서 치의학 석사를 마친 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겸 불교문화대학장, 불교문화대학원장,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수암 교수, NPAFC 의장 선출

김수암 부경대 명예교수(사진)가 최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제 7차 국제기구인 북태평양소화성어류위원회(NPAFC) 연례회의에서 제13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NPAFC는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연어 등 산란(産卵)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소화성(溯河性) 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3년 출범했다.

정승혜 대표, '마르쿠스 후즈' 등재

정승혜 골든캣츠 대표(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한 곳인 '마르쿠스 후즈 후 인 더 월드' 2018년판에 등재됐다. 정 대표는 스포일러맨스, 아인스탠스 등 일반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한국무용 프로그램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 대표는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SSCI)에 등재된 국제저널에도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에 김정희씨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정희 대한민국제향인회 비서실장(55·사진)을 임명했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3년. 희망브리지는 1961년 전국 방송사와 신문사,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법정 구호단체다.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모금을 비롯해 자원봉사활동, 구호물품 지원 등을 제공한다.

홍대 앞 서교호텔 리모델링한 건축가 스티븐 송

“슬로 건축”으로 홍대 랜드마크 답 찾았죠

서교호텔은 30년 넘게 서울 홍대 앞을 지켜온 랜드마크였다. 7년간의 리모델링 끝에 지난달 부티크호텔인 라이즈(RYZE)호텔로 다시 태어났으며 주변 상권을 바꿔놓고 있다. 낡은 건물은 리모델링에 들어갔고, 허름한 숲집들은 디자인이 너브랜드스 등으로 변신 중이다. 2011년부터 리모델링을 이끌어온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 스티븐 송 SCAAA 대표(한국명 송현달·사진)를 지난 26일 만났다.

송 대표는 “홍대라는 지역적 상징과 그 중심에 있는 호텔이라는 맥락에 맞게 답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겉모습은 차분하지만, 내부는 볼수록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는 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홍대는 젊던 추억을 되새기려는 30~40대까지 다양한 사람이 몰려드는 공간”이라며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지역인 홍대에서 수개월간 살아보며 그 특수성을 직접 파악했다”고 했다. 그는 호텔 주인인 아주호텔엔 리조트의 문운회 대표와 건축 자제를 구하러 중국 석산을 찾았다니기도 했다.

송 대표는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뉴욕의 건축가그룹인 비움(VIUM)에서 일한 뒤 8년 전 자신의 회사 SCAAA를 설립했다. 그는 “다른 건축회사가 의뢰인



美서 건축학 전공한 한국계 미국인 7년간 라이즈호텔로 재탄생시켜

“빨리 짓는 것보다 ‘지속가능’이 중요 예술가에 영감을 주는 지역 특성 살려”

의 요청에 따라 2~3년 걸려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지을지”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의 회사 직원 중에는 건축 전공자가 아니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며 최적의 답을 찾는다. 송 대표는 “과거에는 빨리, 높이, 크게 짓는 것이 최선이었다면 건축 포화상태

인 지금은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건축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이즈호텔의 건축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건축회사가 공간에 40% 정도 생명을 불어넣었다면 나머지 60%는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강조하는 ‘슬로 건축’의 가치는 다른 수익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SCAAA는 부동산 투자와 건축 설계 노하우를 접목한 전문 컨설팅도 하고 있다.

그는 이전 직장에서 서울 여의도 IFC몰 설계를 담당했고, SCAAA를 통해 말리부 칼미고스 랜치, 텍사스 일턴 더블트리 등을 건축했다. 서울 마곡로 크릭스센터, 필리핀 증권거래소 등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올해 서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강남역 인근에 신개념 공유오피스 ‘빌딩블러블’을 오는 7월 열기로 했다. 다른 공유오피스와 달리 패션, 건축 등 디자이너들이 가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했다. 그는 “다지 않은 작품을 보여주는 소품, 넓은 도면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작업실, 다양한 재질을 연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아군이 갖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샤워실 등을 접목해 창작자들에게 딱 맞는 공유오피스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진입장벽 낮추고 싶어”

평창대관령음악제 새 예술감독 30대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강요 교수님이 판을 짰고, 정명화·정경화 선생님이 판을 펼쳐 놓았죠. 저는 평창까지 찾아오는 많은 관객에게 어떤 음악으로 보답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15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3대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손열음 감독(사진)이 첫 감독 데뷔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9일 서울 한남동 일신홀에서 열린 평창 대관령 음악제 기자간담회에서다.

손 감독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다. 2011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국제무대에서 조명 받고 있다. 한창 연주에 대한 포부도 모자란 시기에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예술감독이란 중책을 맡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손 감독은 “지난 15년 동안 현악기를 연주해온 선생님들이 감독을 맡았다”며 “음악제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인제



로 정명화·정경화 선생님이 피아니스트 인지를 가장 많이 추천해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강원도 출신이라 스스로 이 음악제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다”며 “2011년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연주자와 부음악감독으로 음악제에 참여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연주 활동을 하던 33세의 피아니스트가 예술감독으로 처음 부임해 음악제를 준비한 기분은 어떨까. 손 감독은 “피아노가 혼자 연주하

는 악기 같지만 실은 다른 악기와 조화를 생각해야 하는 악기”라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야 하기에 이런 음악제에 감독으로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혼자 연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시작한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강원도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성장했다. 올해는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리조트 내 콘서트홀과 뮤직테츠를 비롯한 강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손 감독은 올해 음악제의 달린 점 두 개로 ‘오케스트라’와 ‘다양성’을 꼽았다. 그는 “매년 잠깐씩 모여서 공연했던 오케스트라였지만 올해부터는 정식 오케스트라로 음악제를 이끌어간다”고 말했다. 손 감독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클래식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관객들도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동네 잔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포스코에너지, ‘안심마을 벽화 그리기’ 포스코에너지가 29일 인천 서구 지역에서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했다. 박진원 포스코에너지 발전사업부장, 이재홍 인천서부경찰서장과 포스코에너지 ‘희망에너지’ 대학생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현대글로벌비스, ‘안전공감 벽화 그리기’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26일 서울 아현동 골목에서 안전을 주제로 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대글로벌비스 직원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가해 25m 구간 길가에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벽화를 그렸다.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전보>과장급>>동부광산안전 사무소장 송충섭
- ◆통일부<전보>고위공무원>>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장 정준희
- ◆남도일보>본사 전무 겸 전남 동부권취재본부 총괄본부장 박준일

부고

- ▶김규옥씨 별세, 황정춘 전 A.P.통신서울지국장 부인상=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2-2227-7556
- ▶김용옥씨 별세, 세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부친상=28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2-2072-2020
- ▶김원진씨 별세, 제세 전 LG전자부장·제우·제현 한국은행부장 부친상, 정숙화·김은주씨·이정민 우리는 행정장 사무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2-2258-5940
- ▶김정인씨 별세, 나병수 광남일보상임이사 모친상=28일 경주시구 VIP정려터 발인 30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
- ▶송영덕씨 별세, 운영홍·영해씨·외순 세무사·정의씨 모친상, 김형년 중앙가족병원장·김영수 E&I 대표·표수원씨·사이중 서울대사회학교수·장모상, 정희영씨 시모상=29일 서울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02-2072-2019
- ▶신태명씨 별세, 박봉규 충북지방경찰청장·자녀지도관 장인상=28일 충북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43-269-6069
- ▶양금희씨 별세, 김인완 인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장

- 모상=29일 가천대길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032-460-3444
- ▶윤재은씨 별세, 보현 광주메일신문원도담당부장 부친상=29일 원도대성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8시 30분 061-554-4456
- ▶이재희씨 별세, 철호 사암·미경씨·준호 신원카드 부부장 부친상, 정우정 태영건설부장 장인상, 남해은 공인중개사·이푸르씨 사무상=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30분 02-2227-7587
- ▶허명숙씨 별세, 성봉석 울산제일일보기자 모친상=29일 울산중앙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30분 010-7922-4501
- ▶허병린씨 별세, 공우 N.H.투자증권경영지원부장·진숙씨 부친상, 박정훈 서&박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인상, 임혜영씨 사무상=29일 강원삼척의료원 발인 31일 오전 7시 30분 033-572-1141

환경에세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alpha-song@naver.com



가두리 양식장과 금배지

오늘은 30년간 일했던 기업과 달라도 한참 다른 국회에 들어온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다. “얼룩녹을 살라” 하셨다는, 얼굴은 빈적 없는 친조모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기업에서 일했다. 얼음이 얼 때는 같이 어는 듯해야 하고 얼음이 녹을 때는 같이 녹는 듯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행동을 지혜롭고 균형있게 하라는 뜻이다.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의 여러 감정 중 나를 압도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국민이 주신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알아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가에 봉사하며 보탬이 되는 진짜 ‘국민 대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각오는 했지만 역시나 쉽지 않은 국회였다. 20대 국회 개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터졌고 생산적인 국정 운영은 밀려난 채 정쟁이 정국을 휩쓸었다. 내가 아는 여야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모두 소신 있고, 사명감 넘치고, 협치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들이었다. 그러나 당론이 부딪칠 때면 국회는 순식간에 가두리 양식장처럼 변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부담과 두려움을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두리 양식장에 빠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었다.

현장과 국회를 잇는 통로로, 관련 산업 현장의 혁신을 발목 잡고 있는 규제를 없애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국민의 삶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고자 했다. 문턱에 걸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타 부처 장관과 여야 의원들까지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국정감사 기간엔 보좌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부지런히 현장을 누볐다. 여야 비례대표 1번이 의기투합해 국회 포럼을 만들어 국민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편적 인식 확산을 도우려고 했다. 간사를 맡은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의미 있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지난주에는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잠깐이라도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를 받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는 금배지가 천근만근 무겁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까봐 항상 두렵다. 한없이 부족한 내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항상 권한을 경계하고 책임의 무게를 느끼며 겸손히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서울퍼런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가두리 양식장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과 감사를 마음으로 앞 국회의원들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었다.

한국관광공사·텐센트 중 방한관광 활성화 협약

한국관광공사가 중국인의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와 손잡았다.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오른쪽)과 정상린(鄭香霖) 텐센트 온라인매체사업군 부사장은 29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양사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내 회원수 10억 명을 보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신(微信)과 각종 온라인 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텐센트는 올 4월 기준 시가총액이 4700억 달러(약 502조원)에 이르는 중국 최대 규모의 IT 기업이다.

관광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한 중국인의 관광 편의 제공과 한·중 관



관광공사와 텐센트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텐센트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과 텐센트 임직원의 방한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텐센트가 보유한 중국인의 해외여행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내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제22기 하람배 여자국수전

해픈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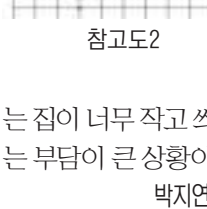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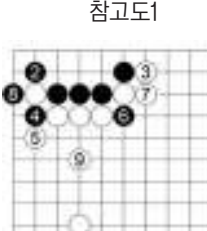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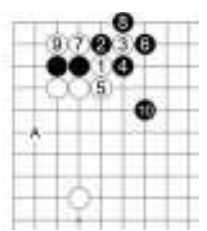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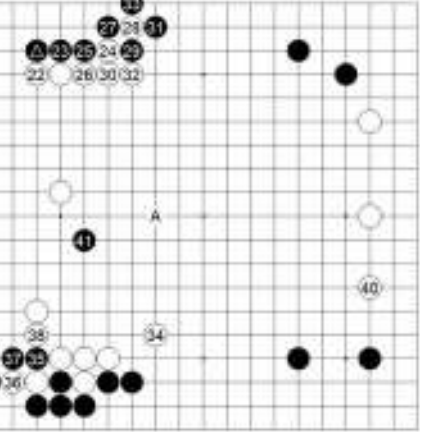
- 1단 이유진
- 3단 오정아

16강전2경기 제2보(22-41)

지난 28일 열린 '제23회 LG배 조선일보기왕전' 32강에서 한국이 중국에 7승4패를 거뒀다. 한국 랭킹 1위 박정환이 '삼성화재배 챔피언' 구즈하오에게, 원성진이 중국 랭킹 1위 쉰제에게 승리했다. 이외에 신진서, 박영훈, 강동윤, 신민준, 이원영이 16강에 올랐다. 김지석, 이세돌, 최철한, 변상일은 패했다. 30일 벌어지는 16강전은 한·중전 4국, 한·일전 2국과 중·대만전 1국이 진행된다.

이번 두터움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 지금은 22로 하는 방향이 맞다. 백24로 참고도1의 정석 진행은 백이 좀 당한 느낌이다. 참고도1 흑10은 쌍방 대세점으로, 놓치면 안 되는 자리다. 추후 A로 활용하는 수 등도 남아 있어 백이 약간 기분 나쁘다. 그래서 백이 24로 한 발 멀리 두었는데 28이 나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수순이 좋았다. 참고도대로 진행된다면 백이 상변을 막았기 때문에 실전과는 차이가 크다.

백32까지 백이 두터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해픈 결과가 됐다. 백34도 대세점으로, 일단 모양을 키우는 것이 좋다. 흑이



35로 끊어 잡은 것은 실리로도 크고 나중에 백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 다음 보에 등장한다. 백40은 큰 자리지만 다소 방향적으로 느낌이 다르다. A로 두어서 중앙을 키우는 게 더 나아 보인다. 흑41이 적절한 식감으로, 백이 뒤로 받기에 는 집이 너무 작고 씩워서 잡으러 가기에 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박진원 5단

아랍 아랍그림